

##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중심으로

Donald P. Gregg

21세기를 향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언론매체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20세기의 잔여일수를 계산하고 있으며, 뉴욕의 부호와 유명인사들은 1999년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 연회의 특별석들이 이미 예약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안타까와 하고 있다.

좀 더 진지한 방향에서는 역사가들이 인류의 불행이라는 관점에서 지나온 20세기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아주 무서운 것들이다. 영국 기자인 베커(Jasper Becker)는 그의 저서 “굶주린 유령들(Hungry Ghosts)”에서 1959년에서 1961년까지 약 3천만 명이 사망한 중국의 기아사태에 주목하였다. 이 엄청난 비극은 홍수나 가뭄 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재(人災)로서, 마오쩌둥(毛澤東)의 가혹한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최근까지 이러한 사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의 투투(Desmond Tutu) 주교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평화와 화해” 원칙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원칙으로 수없이 드러난 사실 중 일부는 너무 끔찍하여, 투투 주교 자신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1세기가 가까운 현재까지도 인류는 금세기 초반에 자행되었던 비극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이 회교도들에게 자행한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는 분명히 악의적인 인종학살이었으며, 르완다의 후투족이 투시족에게 했던 행위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다.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금부터 약 백년 전 무렵에는 낙관주의가 팽배하였으며 “진보(progress)”가 표어였다.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콜럼비언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는 콜럼버스의 아메리

카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매우 미래낙관적인 행사였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의 루이지애나 구매박람회(Louisiana Purchase Exposition)는 루이스(Lewis)와 클라크(Clark)의 탐험 이후 미국에 전래된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낙관주의에 바탕해서 열린 마찬가지의 행사였다. 또 1905년에는 루즈벨트(T. Roosevelt) 대통령이 러·일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현재에는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대신 냉소주의만 곳곳에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진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없으며 지구온난화, 인구폭발, 환경문제와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대한 걱정이 널리 퍼져있다.

비록 냉전에서 승리하였지만,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혼란이 지배적이다. 미묘한 탈냉전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뚜렷한 이정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탈냉전의 시대나 다음 세기 진입을 위해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정표가 사실상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구소련의 몰락 이후 이 세계가 접할 새로운 시대를 묘사하려고 최초로 시도하였는데, 그의 저서인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에서 소련식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세계는 반드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소말리아, 보스니아, 알제리, 이란, 그리고 르완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후쿠야마의 낙관적 이론에 깊은 의문을 품게 한다.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Samuel Huntington)교수는 그의 저서인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구성(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역사의 종말”을 폭넓게 비판하면서, 후쿠야마의 주장을 단순히 세계적 사건들의 진화적 패턴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한 이론으로 격하시켰다. 헌팅턴은 후쿠야마의 이론을 거의 무시하면서, 스스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고 일컫는 전세계에 걸친 문화적 갈등이 냉전의 이념투쟁을 대신하게 될 시대를 예언하고 있

다. 그는 더 나아가 종교, 민족적 유산, 민족성 등과 같이 문화에 뿌리를 둔 갈등이 국익과 세력균형에 관련된 전통적인 정치적·군사적 문제보다도 더 다루기가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갈등은 서구, 회교, 그리고 중국 주도의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삼극의 세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헌팅턴은 “미국화(Coca-colonization)”라고 일컬어지는 개념을 해체시킴으로써 문화적 갈등이라는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미국화” 이론은 미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휩쓰는 동시에, 사고와 신념의 측면에서 세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가 “초밥을 먹는다고 해서 미국인을 일본인처럼 생각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코카콜라를 마시다고 해서 러시아인을 미국인처럼 생각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그의 이론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국 대중문화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서구문명의 승리를 대변한다는 주장은 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모욕이며, 서구의 핵심적인 가치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다른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헌팅턴은 그 자신이 “... 서양은 근대이기 훨씬 이전부터 서구적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서구 문명의 핵심적 개념이 8세기와 9세기에 등장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서구화와 근대화 사이의 필수적인 연계를 단절함으로써 논리적인 형평을 기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非서구국가들이 서구화하지 않은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대화와 경제발전은 문화적 서구화를 요구하지도, 또 불러 일으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토착문화를 부활시키고 새롭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은 논란을 이렇게 담담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복잡다양한 여타 문화세계에 대한 서구의 개입과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헌팅턴은 서구의 지도자들에게 “... 서구문명의 독특한 특성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과 가치, 그리고 소중한 문화와 독특한 문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유럽과 긴밀히 협력하는

대서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나머지 세계에 대해 헌팅턴은, 라틴아메리카는 결국 유럽 및 북아메리카와 함께 “서구문명의 제3의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나,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시아 사회는 서구문명에 융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서구에 대하여 경제적·정치적으로 계속 도전하는 자세를 취할 것 같다.”고 하였다.

1996년 12월 뉴욕에서 개최된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회의에서 APEC(아·태경제협력회의)의 협력증진에 대한 평가작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헌팅턴의 이론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APEC 18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13조 달러에 이르며 이들은 세계무역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고, 인도와 러시아 등 11개국이 APEC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며 AP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4차례의 APEC 회담 중 하나를 이미 유치하였다. 중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를 가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성된 APEC은 서구, 이슬람, 그리고 아시아가 서로 협력이 아니라 충돌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헌팅턴의 주장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수빅灣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APEC이 진보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도력이 APEC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계가 필연적으로 전환해야 할 방향이 민주주의라는 후쿠야마의 주장이 오류라고 하는 헌팅턴의 견해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다른 국가에게 민주주의를 그들의 가치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독단적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헌팅턴은 우리가 아예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말고 서구국가들끼리 서구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또, 만약 우리가 세계는 “문명의 충돌”로 운명지어져 있다는 헌팅턴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고심하였던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 아시아와 서구

서구와 아시아의 관계는 복잡한 모자이크와 같은 형태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낙담보다는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요인들이 더 많다.

유럽은 아시아를 “미지의 세계(terra incognita)”로 치부한 것이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을 깨닫고 있다. 유럽 굴지의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에 참여하여 미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인권이나 특허권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미국기업들이 사업추진을 꺼리는 곳에서 순전히 경제적 바탕에서 거래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이러한 유형의 경쟁은 미국 기업인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랫동안 위축되어 온 아시아와 유럽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對아시아 관계는 클린턴 제1기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무관심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1996년 3월 하반기에 아마도 최저점에 이르렀다. 당시 중국은 대만정부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에 미국은 대만해협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험악한 힘겨루기 사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일관성없이 끌고 가던 이 시기에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CD-ROM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와 같은 구체적 무역사안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라는 인상을 주었다. 미국은 중국 문제를 매우 어리석게 다룸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앞으로 미국이 담당할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 지역 전체에 인식시킨 것이다.

지난 2월 올브라이트(Albright)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클린턴 제2기 행정부와 아시아의 관계가 보다 나은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서울, 도쿄 및 베이징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순방을 회고하면서,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관계, 세계 및 지역 평화 수호, 세계경제 증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Wen Hui Daily, 1997년 2월 25일자, 6면, NAPSNET Daily Report에서 재인용).

이것은 아시아를 문화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지도자의 말이 아니다. 이제 중국은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친밀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부당한 정치적 기부행위를 통해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이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가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뒤안으로 물러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행동하고 또 우리의 영향, 특권 및 노하우(know-how)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싶어서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제반 논쟁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베리타 헤리언(Berita Harian)지는 1997년 2월 13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가 아시아에 밀어닥칠 때 동남아시아가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를 저지한 것은 미국이었다. ... 그러나, 지금은 서구의 맹주인 미국이 아시아의 각국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더욱 명확한 평가를 내려야 할 시기이다. 아시아 문화는 미국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신념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인권문제, 특히 전쟁과 기아 및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적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왔던 말레이시아에서조차 서구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1996년 12월 30일자 비즈니스 타임즈(Business Times)지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아시아로부터의 도전이 더욱 강력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아시아적 방법을 채택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 서구는 한때 자신들의 문화에서 도태되었던 근면성과 정중함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더 까다롭고 불성실하며 무례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아시아의 기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인용은 냉전종식이 새로운 수준의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금, 미국과 서구가 아시아와의 건설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이다. 정보기술은 이 세계를 “세계화”로 이끌고 있으며, “세계화”는 결국 세계를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국에는 한계에 이르게 될 문화적 차이에 연연하여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다면 이는 비극적인 큰 실수가 될 것이다.

### 국제안보 현안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계속 활동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 참여의 핵심부분은 군사적 자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약 10만명의 주둔병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안정되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는 한 미군이 아시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헌팅턴의 주장을 국제안보 측면에서 살펴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매우 많은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문화적 배타성의 군사적 측면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서구의 응집력을 강조하는 헌팅턴의 주장은 “... 미국은 유럽의 힘이며, 그리고 반드시 유럽의 힘으로 남아야 한다.” 라고 한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1996년 5월 11일 프라하 연설을 반항하고 있다.

헌팅턴의 이론은 미군이 아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은 미국의 전략적 관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헌팅턴이

주장한 바와 같이 미국이 문화적으로 내부지향적이 된다면, 아시아는 점차 미국에게 비우호적이고 낮은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인들은 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인디언전쟁 시기의 미국에서 수(Sioux)족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세워진 백인요새를 바라보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요새들은 인디언들에게 백인들이 비우호적인 목적으로 세운 적대적 전초기지로 비추어졌다. 1990년대 후반인 지금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아시아에서 군대를 철수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군철수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군사력과 외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와이 서쪽에 아무런 군사력도 없다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미군철수와 그 과정이 세계언론에 자세히 보도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느낄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이 이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지는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공약이었다. ... 명백한 이유없는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이익축소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1997년 2월 16일자 *The Korean Times*에서 재인용) 라고 논평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후퇴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은 아마도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의 감소일 것이다. 1996년 12월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팽팽한 협상끝에 북한으로부터 그 해 9월에 발생한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북한은 이 성명에서 앞으로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조인한 이래 외부세계에 취한 가장 긍정적인 조치이다.

3만 7천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거나, 또 “팀 스피리트” 훈련 등의 반복을 통해 주한미군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지 않았다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

은 비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군력이 개입하기 이전에,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의 도발행위를 저지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노력이 비효과적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만약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아시아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계인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탁월한 위치에 중국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시기에 직면하게 될 세계의 양상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뿐만이 아니다. 아시아의 많은 중소국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이 과거에 누렸던 제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리관유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을 일본에 주둔시켜왔기 때문에, 아시아의 석유수송라인인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아시아 해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는 이러한 노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이다. 이러한 개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헌팅턴은 그렇지 않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일 대학의 도날드 케이건(Donald Kagan) 교수는 1995년 발행된 “전쟁의 기원과 평화의 보존에 관하여(On the Origins of War and Preservation of Peace)”라는 저서에서 강대국간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세계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유약함과 유화적인 태도는 항상 분쟁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세한 힘으로 평화를 보

존하기 원하는 국가들이 그러한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책임과 부담을 질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Kagan, p. 570)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영국의 군사역사가인 존 키건(John Keegan)은 1993년의 저서인 “전쟁의 역사(A History of Warfare)”에서 “세계 공동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훈련되고 규율있는 전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공동체의 권위에 헌신할 의지를 가진 전사들이며, 문명의 적이 아닌 보호자로 간주되어야만 한다.”(Keegan, p. 392)라고 하였다.

### 중심으로서의 한국

탈냉전의 세계에는 미국이 안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매우 미묘한 영역이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들이 미군의 전사에 대해서는 거의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종족분쟁으로 야기되었던 소말리아 사태때 미군 18명이 전사한 것이 미국이 너무 깊이 개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미국은 중동, 보스니아, 르완다 등과 같은 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우리는 보스니아에서 기소된 전범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포하려 하지 않고 있다. 보스니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내년에 미국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방문시, 아랍과 이스라엘을 양분시켜온 문제들을 피해가며, 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양측을 중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함과 동시에, 만약 아랍과 이스라엘이 계속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원한다면 미국은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한반도의 “위험지역에(in harm's way)” 3만 7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킨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미국의 도덕적·법적 의무로써,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만

약 북한이 남한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 본인이 오클라호마의 툴사(Tulsa)에서 지역 대외관계위원회(Local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대학생, 그리고 지역신문 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중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초점이 집중되었다. 본인이 툴사에 도착하기 며칠 전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탈냉전시대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회의에서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샘 님(Sam Nunn) 전 상원의원, 그리고 진 커크패트릭(Jean Kirkpatrick) 전 유엔대사를 포함한 저명한 전문가들이 미국이 관계된 지역 중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본인의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미국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한반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짧은 전쟁일지라도 인명손실 면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지역 전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본인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위험스러워질 것이며, 1976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았던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본인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군사력과 외교가 북한과의 협상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답변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면서, KEDO(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가 최근 북한에서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은 2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의 관계자들이 북한에 있는 KEDO 활동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면에서 북한과 폭넓게 협상함으로써 가능했다.

또, 본인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식협정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열렸던 북한과의 4자회담 예비회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점도 언급하였고,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

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계속 희망해 왔으며, 러시아가 맡을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6개의 지역국가 모두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냉전종식후 대화와 협력이 거의 전무하였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의미있는 하나의 양상으로 정착될 것이다.

오클라호마 강연후 본인은, 9월 18~19일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융통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후속회담 계획이 없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북한은 제네바 4자회담에 대해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또 다른 장애물이라고 여긴다. 북한은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게 느끼고 있다. 그들은 4자회담에 참여하기 전에 식량공급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 당 총서기로 선출되는 시기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당 총서기에 선출되자마자 어려운 정책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김정일이 막후에서 조용히 통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김정일이 외부세계에 식량을 구걸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굴욕이며,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식량제공 약속을 얻으냄으로써 이러한 굴욕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참여하고, 한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유동적인 한국의 정치상황 역시 현 시점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인은 최근 중국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중국의 고위 외교관을 만났는데, 그는 KEDO가 이룩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중국은 성공적인 4자회담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또 그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하였는데, 본인은 그의 조언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에 관계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사건의 흐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날의 상황은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금세기초 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더 건설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인다.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 한일합방을 추진하였으며, 미국은 일본과 태프트-가쓰라(Taft-Katsura Pact) 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불미스러운 역사에 일조하였다.

오늘날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KEDO 프로젝트에 한국 및 미국과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막후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4자회담에 대해서도 열의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가운데 위치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주변의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존경받고 있다. 한국은 이 지역 국가중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미국내에서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잠재력을 더해가는 미국의 충실한 우방이자 동맹국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대해 건설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또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진행중인 개입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본인은 현재 수행중인 미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데 한국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이러한 과정을 시작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40년 이상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 온 대사께서는 한국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가?

**답변** 본인이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동시에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본인은 점진적인 통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정일은 붕괴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국내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가 국내구조를 갑작스럽게 붕괴시키지 않고 하나씩 정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김정일이 북한의 국내구조 재정비에 깊이 관여할수록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본인이 읽은 서방기자의 북한기사중 북한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기사를 어제 날짜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지에서 읽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한 기자는 평양근교에 있는 고아원과 병원으로 안내되었으며, 거기서 그 기자는 왜소한 체구의 고아들과 마취도 없이 수술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뭄에 허덕이는 지역 풍경을 보았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외부세계에 이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본인은 점진적인 협력과정이야말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미국의 군사전략은 소위 “윈 윈(Win Win)” 전략이다. 본인은 이것을 미국이 한국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귀하의 강연에서 미국이 중동보다 한국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더욱 집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답변** 중동의 아랍과 이스라엘은 평화협상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과거 미국은 중동의 평화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는 아랍측보다는 이스라엘측을 지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양측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천년 전부터 시작된 당신들의 싸움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당신들을 도울 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결정이다.” 본인은 이것이 윈(win)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는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공약, 동맹,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의 결과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 지역에서 새로운 힘의 관계를 차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출범하였다. 본인은 1964년에서 1966년까지 미얀마에서 재직하였는데, 그 당시 동남아시아는 혼란 그 자체였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에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자 ASEAN이 결성되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화창구인 ASEAN은 그 지역에서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에는 아직 이와 같은 기구가 결성되지 못했지만,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관련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호간의 대화가 매우 적절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의 형태로 지속되기를 바란다.

**질문** 북한에 대한 원조식량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는 “당근과 채찍” 정책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계속하여야 하는가?

**답변** 원조식량의 일부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국가에 식량지원을 계속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식량지원 여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던지 혹은 앉던지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정책에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공된 선의에 화답하여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확실히 해두어야만 한다. 북한이 KEDO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KEDO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식량을 아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관계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비무장지대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임을 북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북한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군대를 철수시켜야만 하며, 그리고 군대철수에 따르는 가치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식량교환과 맞거래하자는 말은 아니며, 또 북한이 당장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자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많이 다룰수록,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 갈수록 문제는 더 쉬워질 것이다.

**질문**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어도 한국은 미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 하에서 중국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한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대사께서는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막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대사께서는 이 경우에도 양국, 특히 일본이 통일 이후의 한국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통일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정책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본인은 중국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부시(George Bush)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중국은 부시 대통령을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는 불안정하거나 위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분단상태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판단하여 1992년에 남한과 수교를 맺었으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대화와 교역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식량을 원조하고, 북한의 어리석은 군사도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정책과정에 간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의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 미·중간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감축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가 아니며, 중국을 건설적인 참여자로 여기고 중국과 함께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수만 명의 주한미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 때가 바로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일 것이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할수록 더 쉬워지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더 복잡하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과 대결종식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나, 일본 경제계는 통일한국이 가져 올 경제경쟁을 우려하여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를 직시하는데 지속적으로 가져온 어려움과 어우러져 있다. 본인은 앞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대화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 참가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대화가 일본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본인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를 더 솔직하게 직시하기 전까지

는 그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 다소 의문스럽게 여겨진다.

한반도의 중립문제는 한국과 북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본인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다. 남북한이 깊이있는 대화를 실제로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남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대사께서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데, KEDO에 대한 한국의 부담비용이 30억 달러라면 일본은 최소한 2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은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지금까지 미국은 1억 달러 상당의 중유를 KEDO에 제공하였으며, EU가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이 세 번째이다. 한국과 일본이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사항이며,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만약 KEDO가 임무를 완수하여 두 기의 경수로 시설이 가동되고 여기에서 나온 전력이 북한경제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동력원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모든 종류의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북한의 전력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본인은 이런 협력과정이 심화될수록 북한을 “연착륙(soft-landing)”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